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설치된 '체온측정기구'를 사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5/29) 청소담당은 청년부 목장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5/30) 주일간식담당은 아가페 목장(김경미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교우동정 : 이원우 성도님이 5월 25일(화)에 경희의료원에서 턱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노회 주관 '청지기 대학' 안내 : 제 194회기 지교회 피택 항준 직분자 교육인 청지기 대학이 노회 주관으로 7월 6일~10월 5일(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뒤편에 유인물로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6월 13일
예배기도(2부)		신동기 집사	이준화 집사	신재준 집사	이정환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박성대 집사 가정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1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2021년
5월 23일
07-21호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42번(시 98:1-8) 다같이
*경배찬송	15장(통 55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84장(통 206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신동기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사 41:8-16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부르심을 좇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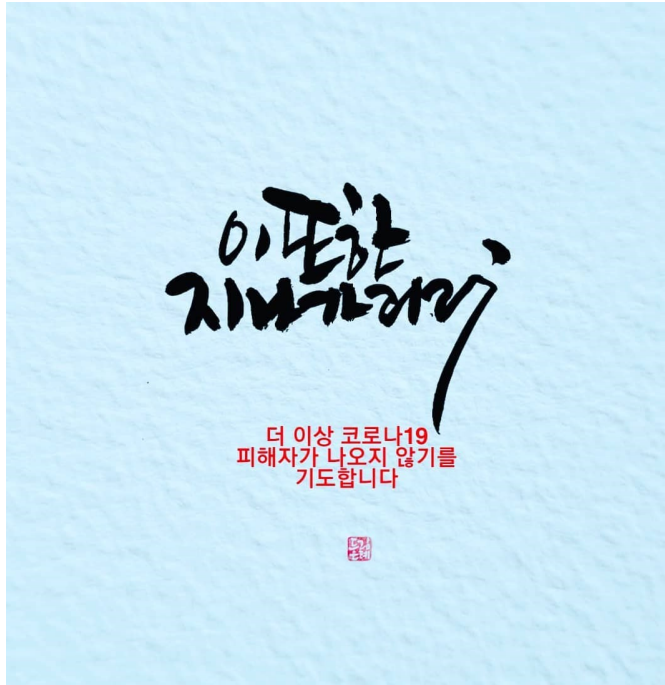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 영 진 목사
롬 11:35-36 '하나님의 주권'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 영 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48)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하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허 영 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깊은 웅덩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시덤불과 찔레 사이를 걸어가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르막길을 한없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코로나 시국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백성의 귀에 쓰디쓴 말들이었고,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던져 넣고 맙니다. 그 때가 때마침 갈수기였기에, 정상적이라면 물웅덩이에 물이 절반쯤 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이었습니다(렘 38:6). 이처럼 구덩이에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던 것은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또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움직이셨습니다. 왕궁의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입니다. 그가 왕을 찾아가 왕이 한 일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왕은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웅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구스인이란 지금의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의외의 사람까지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에벳멜렉은 웅덩이로 가기 전 형겅과 낚은 옷을 챙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내려 주면서 겨드랑이 밑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예레미야가 그냥 밧줄을 잡았다가는 도중에 놓쳐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은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레미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웅덩이는 결코 없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